



벤엘에 제단을 만들어도 될까요?

열왕기상 13장 3-9절

혹시 주말날 예배를 내 마음대로,
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?



솔로몬의 아들
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,
르호보암의 신하였던
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
열 두 지파 중 열 지파의 지지를 받아
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.



하지만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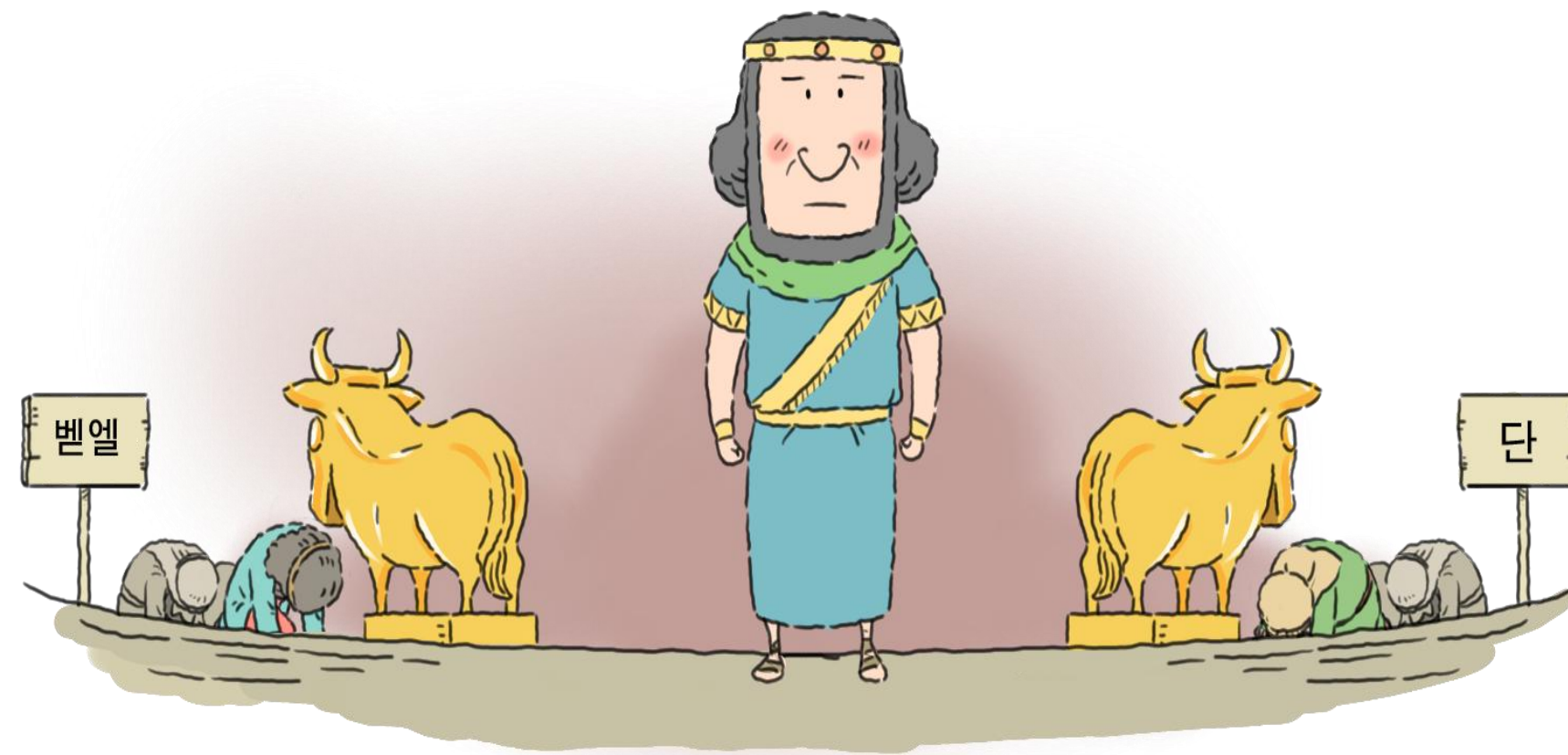


예루살렘

북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
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남유다에 갔다가
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.



굳이 남유다로 가지 **않고**도 **예배**를 드릴 수 있도록
북이스라엘에도 예배 **장소**를 두 군데에나 **만들었어요**.



화가 나신 **하나님**은 **예언자**를 보내
잘못을 깨닫도록 **기회**를 주셨지만
여로보암은 뉘우치지 않았고, 결국 **벌**을 받았어요.



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가요?

??

